

# 또 한명의 초보감독, 광주 축구 열풍 이어갈까

## 광주FC 이정규 감독 선임



‘정효불’ 잘 아는 지도자... 연속성 선택한 광주  
선수 등록 금지·전력 이탈 속 데뷔 시즌 시험대

갈림길에 선 광주FC가 ‘이정규’로 새로 출발한다.

이정효(50) 감독과 작별한 광주FC는 지난 24일 신임 감독으로 이정규(43) 전 서울이랜드FC 수석코치를 선임했다. ‘정효불’로 표현할 수 있는 광주 축구를 잇기 위한 선택이다.

이정규 신임 감독은 지난 2022년부터 2024시즌까지 광주 수석코치를 맡아 이정효 감독을 보좌했다. 그리고 광주에서의 첫째 K리그2 우승을 시작으로 2023년 K리그1 3위 달성, 구단 최초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진출 등을 이뤘다.

가장 가까이에서 이정효 감독의 축구를 지켜보고 역사적인 순간들을 만들었던 만큼 광주는 ‘구단의 축구 철학과 전술적 색채를 잘 이해하는 지도자’로 이정규 감독을 선택했다.

고려대 출신인 그는 성남 일화를 통해 프로 유니폼을 입었지만 선수로는 빛을 보지 못했다. 30살의 나이에 우석대학교 수석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이정규 신임 감독은 동의대, 중국 리장FC, 부경고, 충남아산FC, 광주FC, 서울이랜드FC 등에서 지도자 경력을 쌓고 K리그1 지휘봉까지 들게 됐다. 기대와 우려의 시선은 공존한다.

국가대표 선수들을 잇달아 배출한 광주는 선수는 물론 신임 감독들의 등용문으로 통한다.

광주는 시민구단으로 재정적인 한계는 있지만 대인 사령탑이 자신의 축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도전의 무대를 제공해 왔다. 이런 환경 속에서 남기일, 박진섭 그리고 이정효 감독이 초보 감독에서 K

리그의 주목 받는 지도자로 몸집을 키웠다.

남기일, 이정효 감독은 수석코치로 광주의 축구를 경험했던 사령탑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이정규 감독도 수석코치에 이어 광주에서 감독 데뷔 시즌을 맞게 됐다.

‘정효불’로 다져온 광주 축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지도자이기에 초보 사령탑 발돋움을 일으켜왔던 광주는 또 다른 역사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는 연속성을 가지고 광주의 축구 열풍을 이겠다는 각오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

선수 등록 금지라는 악재가 기다리고 있다. 광주는 연대기여금 미납으로 인한 FIFA(국제축구연맹) 징계로 내년 시즌 상반기 선수 등록을 할 수 없다.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는 6월까지 선수 등록이 불가능한 만큼 기존 선수와 새로 콜업한 U-18(금호고) 선수들로 시즌 초반 싸움을 해야 한다.

여기에 핵심 멤버들의 군복무, 이적 등으로 인한 이탈자가 발생한 만큼 선수단 운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수층이 급격히 얇아진 만큼 기존 축구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효불’의 큰 틀은 유지하되 신임 감독만의 색을 입혀야 한다는 점도 고민이다.

이정효 감독이 확실한 색과 카리스마로 선수단을 장악했던 만큼 변화를 맞는 선수들과 구단 모두 적응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이정규 감독의 리더십에도 시선이 쏠린다.

이정규 감독은 선수 유출 속 젊은 선수들을 육성



광주FC가 이정효 감독과 3년간 수석코치로 호흡을 맞췄던 이정규 전 서울이랜드 수석코치를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다.

〈광주FC 제공〉

하면서 성적을 내야 하는 험난한 데뷔 시즌을 앞두고 있다. ‘강성’으로 분류되는 지도자인 만큼 위기의 팀을 하나로 묶으면서 연착륙하는 게 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신임 감독을 선임한 광주는 코칭스태프 인선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5일부터 태국 후이안에서 1차 동계훈련에 나서게 된다.

한편 광주 축구 역사를 새로 쓴 이정효 감독은 2026시즌 K리그2 수원삼성 지휘봉을 들고 ‘승격’ 도전에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FC, 오하종 영입으로 ‘스피드’ 강화

### 빠른 발·활동량 앞세워 측면 보강

광주FC가 스피드로 뒷심 싸움을 준비한다.

광주는 24일 측면 전력 강화를 위해 선문대 출신 winger 오하종(23·사진)을 영입했다.

제주시초-신명중-이천제일고를 거친 오하종은 빠른 발과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강점으로 꼽힌다.

과감한 1대1 돌파 능력을 바탕으로 측면 공격에 활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빠른 스피드로 측면을 뚫는 wing 포워드인 그는 사이드백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 광주의 ‘루키’ 강희수·김동화와 함께 선문대의 ‘4관왕’을 이끈 주역이기도 하다.

광주는 내년 하반기 조커로 오하종을 낙점했다.

광주가 연대기여금 미납으로 인한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으면서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는 6월부터 선수 등록을 할 수 있다. 광주는 등록에 앞서 팀 적응과 전술 이해에도 중점을 두고 실전을 준비하게 할 계획이다.

오하종은 “동기인 강희수, 김동화의 프로 진출



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았는데 다시 같은 팀에서 함께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눈앞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구단과 팬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포항, 기성용과 동행 ‘1년 연장’

중원 리더십·경기 조율력 인정...기성용 “믿음에 보답”

“감독님의 믿음, 팬들의 사랑 보답하겠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1 포항 스틸러스가 지난해 7월 합류한 ‘베테랑 미드필더’ 기성용(37·사진)과 1년 재계약을 마쳤다.

포항 구단은 25일 “기성용과 1년 재계약하면서 2026년 시즌에도 함께 한다”라며 “기성용은 공수 양면에서 중심축을 잡아주며 이번 시즌 막판 풀타임 경기를 여러 차례 소화해 건재함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2006년 FC서울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한 뒤 유럽 무대에서 오랫동안 활약하다 2020년 서울로 복귀한 기성용은 지난해 7월 포항으로 이적하며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기성용은 지난해 부상으로 4월 이후 출전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자 서울과 결별을 선택했고,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당시 국가대표팀 코치였던 박태환 감독이 지휘하는 포항을 새로운 동지로 삼았다.

지난해 시즌 도중 유니폼을 갑아입은 기성용은 16경기에 출전해 2도움을 기록했고, 포항은 K리그1 4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기성용에 대해 포항 구단은 “정확한 킥과 시야를 바탕으로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며 중원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라며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으로 선수단의 중심을 잡아주며 경기 운영과 훈련 과정에서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전했다. 그의 존재는 어린 선수들에게 큰 신뢰와 동기부여가 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포항은 내년 1월 38살이 되는 기성



용과 1년 재계약을 결정했다.

기성용은 포항 구단을 통해 “힘들었던 시기에 박태환 감독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재계약으로 보답하는 게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재계약 소감을 전했다.

그는 “제2의 인생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지난 6개월간 팬분들께서 보내주셨던 사랑과 응원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올해보다 내년엔 더 발전된 모습으로 팬분들을 찾아뵙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담 올러



해럴드 카스트로



제리드 데일

## KIA, 올러와 재계약... ‘외국인 퍼즐’ 완성

네일과 ‘원투펀치’ 유지...빅리거 카스트로·아시아쿼터 데일 낙점



KIA 타이거즈가 아담 올러와 재계약을 하는 등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무리했다.

KIA는 24일 아담올러(Adam Oller·31·우투우타)와 총액 120만 달러(계약금 20만, 연봉 70만, 옵션 30만 달러)에 재계약을 끝냈다. 패트릭 위즈덤과 작별한 KIA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빅리거’ 해럴드 카스트로(Harold Castro·34·우투좌타)를 영입했고, 아시아쿼터는 호주 국가대표 출신의 내야수 제리드 데일(Jarryd Dale·25·우투우타)로 채웠다.

올 시즌 KIA 유니폼을 입고 KBO에 데뷔한 올러는 26경기에 나와 149이닝을 소화하면서 3.62의 평균자책점과 11승 7패를 기록했다.

올러는 팔꿈치 염증으로 한 달 여의 공백이 있었지만 팀에서 가장 많은 11승을 수확했다. 또 169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9이닝 당 탈삼진 10.21개를 기록, 이 부문 리그 5위에 올랐다.

WHIP(이닝당 출루허용율) 1.15를 기록하는 등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그는 2026시즌에도 제임스 네일과 ‘원투펀치’를 구성하게 됐다.

KIA는 새 외국인 타자 카스트로와는 100만 달러(계약금 20만, 연봉 70만, 옵션 10만 달러)에 사인을 했다.

183cm·88kg의 체격을 갖춘 카스트로는 정교한 타격 능력이 돋보이는 중장거리형 타자로 내·외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다.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6시즌을 보내면서 통산 450경기에 나와 0.278의 타율로 391안타 16홈런 156타점 134득점을 올렸다.

마이네리그에서 3시즌(이하 트리플A)을 보낸 카스트로는 204경기에서 215안타 27홈런 109타점 98득점과 타율 0.294를 기록했다. 올해는 마이네리그에서 99경기를 뛰면서 113안타 21홈런 65타점 0.307의 타율과 OPS 0.892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KIA는 또 박찬호의 FA 이적으로 생긴 내야 공백을 채우기 위해 아시아쿼터로 호주 멤버를 출신의 내야수 데일을 계약금 4만, 연봉 7만, 옵션 4만 달러 등 총액 15만 달러에 영입했다.

내야 전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데일은 2016년 호주 ABL의 멤버인 에이시스를 통해 프로 생활을 시작했으며 2019년 샌디에고 파드리스와 마이너 계약을 맺고 트리플A 2시즌 포함, 총 6시즌을 뛰었다.

올해는 일본 NPB의 오릭스 버팔로즈의 육성 외국인 선수로 2군에서만 41경기에 나와 35안타 2홈런 14타점 12득점 타율 0.297를 기록했다.

그는 지난 10월에는 멜버른 에이시스 소속으로 올산에서 열린 2025 KBO Fall League에 참가해 12경기에서 17안타 7타점 10득점 타율 0.309를 기록했다.

지난 11월에는 KIA의 마무리캠프가 열린 일본 오기나와를 찾아 테스트를 진행했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